

지 평 의  
 사 회 적 가 치 경 영 과  
 지 속 가 능 성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 **임성택**

지평은 2017년부터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내왔습니다. 국내 로펌 중 처음이며 아직 유일합니다(다른 로펌들은 아직 사회공헌 보고서만을 내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중에는 삼일회계법인이 처음으로 2019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ESG가 기업의 화두가 되고 있고, 법무법인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법무법인도 기업인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은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특수법인이므로(변호사법 제1조) 더욱 그러합니다.

변호사업의 이해관계자인 의뢰인, 공급망, 지역사회도 변호사에게 ESG 실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국적기업들은 고문 로펌들에게 경제(반부패/하도급), 환경, 사회(노동/보건/안전/인권) 등 ESG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경 미국의 170개 대기업과 유럽의 65개 대기업 법무팀장들은 로펌의 다양성(Diversity) 증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자사가 선임하는 로펌도 다양성 정책을 반영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여러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로펌의 입찰 제안서에 남녀 변호사를 모두 포함하는 팀을 구성하고, 로펌 구성원의 성비 등을 기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법률가들의 ESG 실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변호사 연합(Net Zero Lawyers Alliance), 지속가능성을 위한 로펌 네트워크(Law Firm Sustainability Network), 소셜 임팩트를 위한 법률 네트워크(ESELA) 등도 꾸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및 유럽의 로펌들은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변호사 방 안에 휴지통을 치운 로펌도 있었습니다. Scope3의 탄소배출 절감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예컨대 해외출장의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이고 상쇄할 수 있을지).

지평은 지난해에도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ESG를 내재화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부족하지만 치열했던 우리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지평은 우리가 하는 업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세상과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의뢰인을 비롯한 우리의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임팩트(IMPACT)는 무엇인지 측정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지평의 공익활동을 임팩트 관점에서 정리해보는 작업을 시작해보았습니다(임팩트 리포트). 지평의 공익활동이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임팩트를 창출한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 것인지, 수혜자들은 누구인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공익활동을 놓고 IMP(Impact Management Project) 및 변화이론에 의한 분석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이런 시도는 국내외를 망라하고 로펌 중에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평은 일을 가장 잘 하는 로펌, 고객에게 탁월함을 제공하는 로펌을 지향합니다. 지평은 구성원이 행복하고 존중받으며 주인이 되는 로펌을 지향합니다. 물론 지평도 돈을 버는 기업이고 매출과 수익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지속가능성과 ESG는 중요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